

안익태 연구 III

— 1938~1940, 두 번의 첼로 연주회와 한 번의 지휘 무대

김보국*

[초 록]

<한국 환상곡>과 <애국가>의 작곡자인 안익태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이는 어쩌면 1966년에 처음 출판되어 이후 2006년까지 다섯 번이나 개정된, 그의 전기에 해당하는 서적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김경래에 의해 출판된 그 책에서 안익태는 지고한 애국가, 탁월한 음악가로 그려졌는데, 그에 대한 묘사가 수 십 년을 거치며 사실화되어 연구자들에게는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부각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안익태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며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에 발굴한 헝가리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의 행적과 음악 세계를 고찰한 세 번째 논고이다. 1930년대 국내의 신문들을 통해 구주에서 그의 활약상이 다수 알려졌는데 본고에서는 헝가리 현지 자료 등을 근거로 리스트 음악원 재적 시기, 그의 음악적 활동에 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

주제어: 안익태, 리스트 음악원, 형일회, 코다이 졸탄, 헝가리, 애국가
Ahn Eak-tai, Ekitai Ahn, Liszt Ferenc Academy of Music, Hungarian-Nippon Society, Kodály Zoltán, Hungary, Korean National Anthem

한 실상을 살펴보았다.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헝가리 출처의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했던, 헝가리에서 안익태의 행적 및 그의 음악에 대한 후속논문이다. 앞선 두 편의 선행 논문들에서는 리스트 페렌츠 음악예술대학교(Liszt Ferenc Zeneművészeti Főiskola, 이하 리스트 음악원) 재적 시기와 리스트 음악원 등록 직전, 헝가리 방송국에서 그의 지휘 및 당시 현지 신문에 게재되었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았다. 반면 본고에서는 그가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이후 그의 음악 및 이와 관련된 그의 활동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안익태의 독일에서의 활동은 비교적 알려져 있으나, 그의 유럽 체류의 시발점이 되었던 헝가리에서의 행적은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관련된 다수의 자료들이 유실되었고, 그리고 남아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대부분이 낯선 헝가리어로 된 자료들이기에 그 해석이 수월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안익태는 거의 3년 동안 헝가리에 체류하였음에도 자신이 작곡하였거나, 연주하였던 악보는 물론이고 자신의 공연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재 밝혀진 자료의 부족이 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부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로 그의 리스트 음악원 재적시기의 행적과 음악적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1938년 10월 23일, 일간지 『에슈티 우이샤그』(*Esti Újság*)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안익태는 1938년 가을 학기(1938/9 학년도 1학기)에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을 하게 된다. 등록 직후, 10월 23일자 헝가리의 일간지 『에슈티 우이샤그』(*Esti Újság*)에는 「코다이에게서 작곡을 배우고자 조선에서 온 젊은 음악가」(*Koreából érkezett egy fiatal muzsikus, zeneszerzést tanulni Kodálytól*)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짧은 기사이기에 전문을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¹⁾

리스트 음악원의 세계적인 명성과 이곳에서 강의를 맡은 교수들의 국제적 권위는 많은 외국 학생들을 부다페스트로 유인하고 있다.

이태리,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온 음악 전공자들이 리스트 음악원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egyenesen*) 조선에서 안익태(*Ahn Eaktai*)라는 젊은 음악가가 부다페스트에 당도하였다. 그는 코다이(*Kodaly*) 교수의 작곡 과정에서 최고 예술 과정(*a legfelsőbb műveszi kiképzés*)을 이수하고자하며, 작곡법을 배우고자 여기에 온 것이다.

황색 피부의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의 이 음악가는 지금까지 도쿄와 필라델피아에서 학업을 마쳤으며, 아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는 헝가리 민속 음악의 가장 탁월한 인물이자, 동시에 새로운 유럽 음악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alkotó művész*)인 코다이의 예술을 접하였다. 이후 코다이로부터 지식을 전수받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가 안익태를 헝가리의 수도로 이끈 것이다.

안익태는 현재 27세이며, 조선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를 구사한다. 그는 외트비쉬 기숙학교에서 거주하고, 작곡 외에 첼로과(科)에도 등록하여 쉬페르(*Schiffer* 교수²⁾)를 사사하고 있다.

1) 「Koreából érkezett egy fiatal muzsikus, zeneszerzést tanulni Kodálytól」, *Esti Újság*, 1938.10.23, p. 10.

헝가리 교우(növendék)들은 극동에서 온 이국적인 동학(egzotikus kolléga)을 애정과 관심으로 맞고 있다.

안익태는 1936년 9월 11일과 1938년 6월 27일에 헝가리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용 음악회를 지휘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헝가리 신문에 그의 인터뷰 기사들이 게재된 바 있다.³⁾ 두 인터뷰 기사는 모두 헝가리의 관점에서 낯선, 조선과 조선인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었는데, 이 기사 역시 그 논조와 같은 맥락에서 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당시 헝가리는 우랄-알타이 가설 등을 주창하며 헝가리 민족주의를 내세운 투란주의(turanizmus)와 헝가리-니폰 협회(Magyar-Nippon társaság, 이하 형일회)⁴⁾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에 음악계에 등장한 낯선 동양인은 충분히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기사에는 안익태가 코다이 졸탄(Kodály Zoltán) 문하에서 작곡을 배우고, 쉬페르에게 첼로를 사사하는 학생으로서, 마치 당시 처음으로 헝가리를 방문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안익태에 관해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그를 소개했을 터인데, 이 기사는 안익태가 이전에 헝가리에서 지휘했던 두 번의 연주회에 대해 그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이는 이미 선행 논문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⁵⁾ 국내에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⁶⁾ 그가 지휘한 음악회는 라디오 방송

2) 안익태는 1938/39 학년도에 작곡, 첼로, 지휘법을 각각 쉬페르 어돌프(Schiffer Adolf), 바이네르 레오(Weiner Leó), 그리고 웅게르 에르뇌(Unger Ernő)에게서 배운 바 있다[김보국(2020a), 「안익태I」, 『한국학연구』 72, 한국학연구소, p. 87].

3) 이 인터뷰 기사들에 대해서는 김보국(2020b), 「안익태II」, 『인문학연구』 33, 인문학연구소, pp. 265-267 참조.

4) 김보국(2020a), pp. 83.

5) 김보국(2020a), p. 98; 김보국(2020b), p. 277.

6) 「구주(歐洲)의 악도(樂都)에서 방아타령 방송」, 『조선일보』, 1936.09.08; 「구주에서 활약하는 안익태씨 명지휘」, 『조선일보』, 1936.08.21; 「세계적 권덕터 안익태씨 애란악단(愛蘭樂壇)에 폭풍적 격찬」, 『동아일보』, 1938.04.16 참조.

국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던 방송용 음악 프로그램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이 기사가 있기 약 4개월 전에 실린 인터뷰에서 안익태는 “코다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교향곡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스승을 부다페스트에서 찾았다고 한 바 있는데,⁷⁾ 이 기사는 그 “스승”이 코다이 졸탄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3. 1939년 5월 17일, 형일회 후원의 첼로 연주회

1938년 가을에 안익태가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을 한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 남아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매 학년 등록 서류들,⁸⁾ 그가 머물렀던 외트뵈쉬 기숙학교(Eötvös József Collegium)의 자료들⁹⁾에서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있으며, 음악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로마, 베오그라드, 부다페스트, 소피아, 부카레스트에서 지휘한 기록들이 현재 일부 알려져 있을 뿐이다.¹⁰⁾ 그의 음악적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이, 조금은 의외지만, 상기한 기숙학교의 자료에서 발견되는데, 1939년 5월 17일에 있었던 그의 첼로 연주회와 관련된 자료들이 그것이다. 외트뵈쉬 기숙학교의 문서보관소에는 [자료 1]과 [자료 2]에서 볼 수 있듯이 안

7)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의 교향곡의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음악가를, 대가(大家, 또는 스승, mester)를 찾고 있었어요. 그 곡 역시 (우리) 민족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이지요(népem lelkéből meríttem). 여기, 부다페스트에서 그런 분을 찾았어요. 나의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정으로 이해 해주신(szíven át megért) 그런 분을 찾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Egy ázsiai muzsikusz, Pesti Hírlap, 1938.07.12, p. 15.

8) 김보국(2020a), pp. 85-93.

9) 김보국(2020a), pp. 94-97.

10) 허영한(2009), 「<한국 환상곡>의 여행: 1937년 미국에서 1946년 스페인으로」, 『낭만음악』 21(3), 낭만음악사, p. 205.

익태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연주회 초청장과 프로그램이 보관되어 있다.¹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익태는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하기 전에 헝가리 라디오 방송국에서 두 차례 지휘를 한 적이 있었으나, 음악원에 등록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기록에 등장하는 첫 음악 활동이 바로 이 첼로 연주회였다. [자료 1]의 초청장과 [자료 2]의 연주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청장¹²⁾

도쿄제국음악원 전(前) 교수¹³⁾인 안익태(An Ekitai)는
1939년 5월 17일(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헝가리-니폰 협회(Magyar-Nippon Társaság)

후원으로 인터내셔널 클럽의 연회장(5구역, 데아크 페렌츠 가
(Deák Ferenc 街) 2번지)에서 처음 개최되는 부다페스트의

첼로 연주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프로그램은 바흐(Bach), 헨델(Händel),
슈트라우스(Strauss)와 연주자 자신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입장. 프로그램 구입 1 P.

[퐁괴(Pengő), 역주: 당시 헝가리 화폐 단위]

-
- 11) [자료 2]에 빨간색 연필로 “tisztelője”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표를 의미하는데, 안익태가 이 공연표를 기숙학교 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12) 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12. oldal. Eötvös József 기숙학교(Collegium)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교장 Dr. habil Horváth László의 승인을 득하였음을 명시함 (이하 생략).
- 13) 안익태와 관련된 일관성 없는 진술, 소개는 상당히 다양하며, 자주 등장한다. 김보국(2020a), pp. 99 참조.



[자료 1] 연주회 초청장

안익태의 첼로의 밤¹⁴⁾

피아노 반주: 코셔 죄르지(Kósa György)¹⁵⁾

당월 17일 8시 30분에 인터내셔널 클럽의 공연장들
(5구역, 데아크 페렌츠 가(Deák Ferenc 街) 2번지)에서
헝가리-니폰 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프로그램:

Largo-Corrente Henry Eccles (1670-1742.)

Sarabande-Minuetto G. F. Händel (1685-1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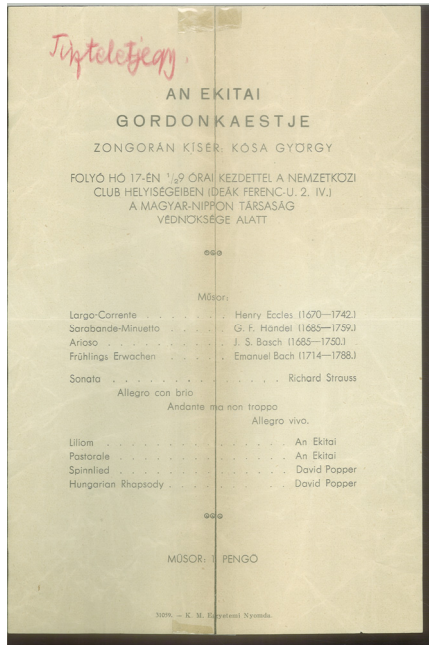
Arioso J. S. Basch¹⁶⁾ (1685-1750.)

14) 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11. oldal.

15) 코셔 죄르지는 헝가리의 저명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으며, 1926년부터 1962년까지 리스트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헝가리에서 1939년 유대법 개정(제2차 유대법, a második zsidótörvény)으로 리스트 음악원에서도 많은 유대인 교수들이 음악원을 떠나야 했으나, 코셔 죄르지의 경우 박해 속에서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주회 자료 외에 코셔 죄르지, 혹은 그와 관련된 문헌에서 안익태가 등장하거나, 안익태가 그를 언급한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 Frühlings Erwachen Emanuel Bach (1714-1788.)
Sonata Richard Strauss
Allegro con brio
Andante ma non troppo
Allegro vivo.
Liliom An Ekitai
Pastorale An Ekitai
Spinnlied David Popper
Hungarian Rhapsody David Popper

프로그램: 1 핑괴



[자료 2] 연주회 프로그램

16) Bach의 오기(誤記).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이 공연 자료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휘자에서 첼로 연주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형일회가 후원한 연주회를 가짐으로써, 이 자료들을 통해 안익태와 형일회의 직접적인 연관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안익태가 이 연주회를 전후하여 형일회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아니며, 그와 형일회의 관계는 이 보다 더 오래되었다. 안익태와 형일회의 관계는 그가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형일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호프 페렌츠 동아시아 예술박물관(Hopp Ferenc Kelet-Ázsiai Művészeti Múzeum)의 관장이었던 펠빈치 터카츠 줄탄(Felvinczi Takács Zoltán)이었으며, 1938년 상반기에 안익태를 리스트 음악원에 추천한 인물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¹⁷⁾ 또한 안익태에게 장학금을 제공한 헝가리 종교 및 대중교육성(M. Kir. Vallás- és Közköztatásügyi Minisztérium, 이하 헝가리 교육성)에 그는 리스트 음악원이 아니라 상기한 펠빈치 터카츠가 관장을 맡고 있던 호프 페렌츠 동아시아 예술박물관에서 학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¹⁸⁾ 따라서 안익태는 최소한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할 시기에는 형일회와 일정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연주회 관련 자료들은 그와 형일회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이어지는 그의 음악 활동이 현지의 일본 외교 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그의 유럽 활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의 활동이 독일협회(獨日協會, Deutsch-Japanische Gesellschaft)

17) 안익태는 펠빈치 터카츠 줄탄 외에 당시 부다페스트 주재 일본 공사관에서도 추천을 받아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0a), pp. 81-82 참조.

18) 김보국(2020a), p. 94.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진 바, 이에 대한 선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한편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안익태는 외트뵤쉬 기숙학교 사용 비용에 대해 1939년 6월까지 헝가리 교육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²⁰⁾ 따라서 이 연주회가 있었던 1939년 5월 당시, 그는 헝가리 교육성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숙학교 이용에 대한 지원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형일회의 후원을 받아 연주회를 개최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 연주회 이후 그는 헝가리 교육성을 방문하여 기숙학교 사용 기간을 1년 더 요청하게 되지만 자비 부담 조건으로 기숙학교 사용을 약 1년 동안 허락받게 된다.²¹⁾ 당시 음악원 등록 이후 거의 1년 동안 어떤 음악적 성과도 보이지 못한 채, 앞날은 물론 당장의 처지마저 불안했던 유학생 신분의 그가 처해 있던 상황과 이 연주회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안익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형일회 및 부다페스트 주재 일본 공사관과 일정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연주회를 통해 그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이후 그의 음악 세계는 점차 일본을 배경으로 한 정치색을 띄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들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편 당일 그의 연주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미리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안익태의 첼로, 혹은 바이올린 연주 기록은 비교적 다수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928년 4월 2일, 중앙기독교 청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연주회²²⁾와 1929년 9월 7일의 독주회,²³⁾ 그리고 1930년 6월 12일

19) 독일협회와 독일에서 안익태의 음악적 활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경분(2007),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서울: 휴머니스트, pp. 84-100 참조.

20) 김보국(2020a), p. 94.

21) 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270/1940. 자비 부담 조건이지만 실제로 안익태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절반은 헝가리 교육성이 부담하였다.

정동 모리스회관(會館)에서 개최된 연주회²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연주 프로그램들이다. 이 외에 1936년 5월 13일, 펜실베이니아의 웨스트 체스터(West Chester)에 위치한 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된 행사에 관한 기록에서도 그의 연주곡명이 전해진다.²⁵⁾ 하지만 웨스트 체스터에서 그의 연주는 음악회라기보다 지역의 친선 모임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초청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1939년 5월 17일, 부다페스트에서 그는 실질적으로 약 10년 만에 독주회를 개최한 셈이 된다.²⁶⁾ 당일 연주한 곡들 중 <Frühlings Erwachen>(春醒)와 <Hungarian Rhapsody>는 1920년대부터 그의 연주목록에 다수 등장한 작품들이다. <Liliom>과 <Pastorale>는 자신의 창작곡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의 신민요를 모티브로 하여 편곡한 곡들로서 상기한 1936년 5월 13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주목록에 등장하였고, 이후 그의 지휘 프로그램과 <한국 환상곡>에 리듬이 차용되어 자주 자신의 연주 프로그램에 오른 작품들이다. 이것은 이 연주회의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통상의 연주회처럼, 첼로 연주자로서 자신의 음악세계와 기량을 청중들 앞에 선보인다는 의미를 이 레퍼토리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이날의 행사는 한 연주자의 일반적인 독주회라기보다 형일회가 후원한 연회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행사로 볼

22) 「東京基青 爲한 音樂大會는 今夜!」, 『조선일보』, 1928.04.02.

23) 이유선(1976),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중앙대학교출판국, pp. 231-232.

24) 「安益泰氏 送別演奏」, 『조선일보』, 1936.06.12.

25) 「Musical and tea end Media season」, *Chester Times*, 1936.05.14. 기사에서도 밝히는 바, 이 행사는 안익태의 연주회라기보다는, 시골 마을인 미디어(Media, 邑名)의 여성클럽 행사에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연주자들을 섭외하여 작은 공연을 한 것이다.

26) 안익태는 형가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36년 여름경에 파리와 런던에서 첼로 연주회를 가졌다고 밝히는 등 이에 대한 일부의 주장은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0b), p. 269 참조.

수 있다. 학·예술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헝가리) 인문학연구소 (Bölcsészettudományi Kutatóközpont)²⁷⁾ 산하 음악학연구소(Zenatudományi Intézet, 이하 음악학연구소)는 헝가리에서 개최된 전체 음악회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목록에 이 연주회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즉, 일반적인 연주회가 아니라 이 행사는 형일회라는 특정 단체가 주관한, 친목과 연회적인 성격이었던 데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4. 1940년 3월 9일, 부다페스트 주재 폴란드 문화원 주최의 자선음악회

이 연주회는 안익태의 독주회가 아닌, 부다페스트의 폴란드 문화원 (Lengyel Intézet)에서 주최한 음악회에서 그가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참여한 공연이었다. 이 역시 국내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수의 헝가리 신문은 단신 기사로서 이 음악회에 관해 전하고 있다. 우선 1940년 3월 8일 『넴제티 우이샤그』(*Nemzeti Újság*)라는 신문의 문화면에 실린 기사²⁹⁾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27) 인문학연구소는 2019년 8월 31일까지 헝가리의 최고 학술기관인 헝가리 학술원(MTA, Magyar Tudományos Akadémia) 산하 연구소였으나, 이후 정부의 학술기관 재편에 따라 신설된 외트비쉬 로란드 연구 네트워크(ELKH, Eötvös Loránd Kutatói Hálózat)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28) 음악학연구소는 1900년 이후 헝가리에서 개최된 약 20,000회의 음악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헝가리의 각종 음악 공연 관련 기관의 자료들은 물론 헝가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된 납본자료들을 통합한 것이다. 포스터와 소형 인쇄물도 납본 대상이었으며, 음악학연구소 소장 정보에서 안익태가 등장하는 음악회는 총 2회가 있고, 2회의 음악회는 모두 헝가리 국립도서관의 “포스터 및 소형 출판물” 납본 자료로서 확인된 것이다. 검색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http://db.zti.hu/koncert/koncert_Kereses.asp.

토요일에 리스트 음악원에서 개최된 부다페스트의 폴란드 문화원 주최 음악회에서 문화원 원장³⁰⁾인 오콜리차니 라슬로(Okolicsányi László) 의원(議員, udvari tanácsos)의 축사에 이어 탁월한 성악가 헨릭 스트체슈스키(Henryk Strzeszewski)³¹⁾는 푸치니의 아리아를 선보이며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 이후 흥미로운 손님인 일본인 첼리스트 안익태(Ahn Ekitai)가 고전적인 작품들과 바흐(Bach)의 곡들을 화려하고 섬세하게 연주하여 소중한 예술가적 성공을 거두었다.³²⁾ ... 음악회는 “너, 아름답고 멋진 헝가리여”(Szép vagy, gyönyörű vagy Magyarország)³³⁾로 환상적인 피날레를 장식하였는데, 이 곡 후에 청중은 초청 인사들과 뛰어난 객원 음악

- 29) 「A Budapesti Lengyel Intézet díszhangversenye」, *Nemzeti Újság*, 1940.03.10, p. 17. 참고로, 『넵제티 우이샤그』는 1919년부터 1944년까지 발행된, 보수적인 기독교-민족주의 정치 성향의 헝가리 일간지였다.
- 30) 기사 원문에는 오콜리차니 라슬로를 (부다페스트의 폴란드) 문화원 원장(intézet elnöke)으로 소개하였으나, 실제로 그는 당시 헝가리-폴란드 (친선) 협회의 의장으로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다[Krzysztof Woźniakowski (2009), “Instytut Polski w Budapeszcie: działalność kulturalno-oświatowa, naukowa i wydawnicza w latach 1939-1944”, *Studia ad Bibliothecarum Scientiam Pertinentia*, Vol. VII, Uniwersytet Pedagogiczny im. Komisji Edukacji Narodowej w Krakowie, p. 126].
- 31) 참여한 음악가들은 안익태와 헨릭 스트체슈스키를 포함하여 헤지 언너 에버(Hegy Anna Éva), 바리디 얼러다르(Várady Aladár), 스타니즈와프 우바지에비츠(Stanisław Łobaziewicz), 고룹 어드리엔네(Gorup Adrienne), 비톨드 우진스키(Witold Łuczyński), 그로흐 클라리(Simonyiné Gróh Klára), 보셔 이르머(Bósa Irma), 모르버이 카로이(Morvay Károly), 그리고 카이 마리어(Kály Mária) 등이었다. 「Lengyel hangverseny」, *Függetlenség*, 1940.03.08, p. 7; 「A budapesti lengyel intézet hangversenye」, *Nemzeti Újság*, 1940.03.08, p. 7 참조.
- 32) 당시 부다페스트에서 발행되었던 폴란드 신문 *Więści Polskie* (폴란드 뉴스) 1940년 27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인 첼리스트 안익태(światowej sławy wiolonczelista japoński Ahn Ekitai)”로 소개되기도 하였다[Krzysztof Woźniakowski (2009), p. 126].
- 33) <함부르크의 신부>(A hamburgi menyaszszony)에 등장하는 곡이며, 빈체 지그문트(Vincze Zsigmond)가 작곡하고 쿨리니 에르뇌(Kulinyi Ernő)가 작사하였다[Stachó László (2006), “Szép vagy, gyönyörű vagy... Magyarország?”, *Muzsika* 49 évf. 5 sz., Pro Musica Alapítvány, p. 36].

가들에게 멈추지 않는 박수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9년 5월 17일의 연주회 이후 약 10개월이 지나 안익태는 다시 첼리스트로 무대에 서게 된다. 그리고 정확한 연주곡명은 알 수 없으나, 헝가리 신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흐(Bach)의 곡 외에도, 폴란드 자료에서는 리스트와 자신의 곡도 연주하였다는 언급이 있다.³⁴⁾ 이를 통해 당시 연주 프로그램은 아마도 10개월 전, 형일회가 후원하였던 연주회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음악회에는 다수의 헝가리 및 폴란드 성악가들과 피아니스트도 공연을 하였으며, 심지어 아역배우까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자료를 통해 보자면 지휘자 또한 등장하고, 기사에서 묘사한 마지막 장면에는³⁵⁾ 작은 오케스트라까지 동원된 것으로 봐서, 이는 하나의 문화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이 음악회를 자선 음악회(jótékonycélú hangverseny)로 소개하였으며,³⁶⁾ 실제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된 무료입장 행사였다.³⁷⁾ 안익태가 첼리스트로 헝가리에서 공연, 또는 연주한 기록은 앞 장에서 살펴본 음악회와 이 연주회가 전부인데, 이 공연 역시 1939년 5월 17일의 음악회와 마찬가지로 헝가리 음악연구소에서 집계한 음악회 목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안익태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경위로 부다페스트의 폴란드 문화원이 주최한 자선 음악회에 참여하였을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와 그 이전에

34) Krzysztof Woźniakowski (2009), p. 126.

35) 「A Budapesti Lengyel Intézet díszhangversenye」, *Nemzeti Újság*, 1940.03.10 참조.

36) 「Lengyel hangverseny」, *Függetlenség*, 1940.03.08, p. 7. 「A budapesti lengyel intézet hangversenye」, *Nemzeti Újság*, 1940.03.08, p. 7.

37) 입장은 무료였으나, 프로그램은 1퐁괴에 판매되었다. 「A budapesti lengyel intézet hangversenye」, *Nemzeti Újság*, 1940.03.08, p. 7.

도 이후에도 관련성이 거의 없었던 안익태가 실제로 성악가들 공연 위주로 이루어진 이날 공연에 참가한 것은 조금 의외로 여겨진다. 우선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당시 폴란드의 상황 및 헝가리와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제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폴란드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9월 17일, 소련군 역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폴란드는 다시 한 번, 폴란드 역사상 네 번째의 분할을 맞게 된다. 한편 헝가리와 폴란드는 인근 국가이면서도 세계사적으로 유래 없이, 지금까지 장기간 그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³⁸⁾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 병합과 뮌헨협정 등을 거치며, 헝가리에 대해서 점점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던 당시, 헝가리와 독일 간 폴란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때에도 헝가리는 폴란드에 대한 독일의 적대적인 조치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이 헝가리 영토를 거쳐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전후하여 헝가리는 당시 텔레키 팔(Teleki Pál)³⁹⁾ 수상을 필두로 친(親) 폴란드 정책을 펼치기도 했으며,⁴⁰⁾ 침공 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헝가리는 약 14만 명

38) 두 민족의 친선 관계를 약 1,000년 전, 헝가리가 지금의 카르파티안 분지에 정착했을 시기에 비롯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Sutarski Konrad (2012), “Az 1000 éves lengyel-magyar kapcsolatok”, *Barátság*, 19. évf., Országos Nemzetiségi Önkormányzatok Szövetsége, p. 727]. 11세기 후반부터 헝가리와 폴란드의 왕가(王家) 간 협력에 대한 기록들도 전해진다[Nyáry Pál (1938), *Magyar-lengyel barátság*, Budapest: Pallas ny., p. 16].

39) 텔레키 팔은 헝가리에서 친독(親獨) 정치인들의 득세와 독일의 폭력에 반대하며, 1941년 4월 3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Antall József and Kapronczay Károly (2019), *LENGYEL MENEKÜLTEK MAGYARORSZÁGON A HÁBORÚ ALATT: LENGYELEK ÉS MAGYAROK*, Budapest: Magyar Tudománytörténeti és Egészségtudományi Intézet, pp. 20-21]. 자살로 그가 생을 마감한 그날은 독일군이 헝가리를 경유하여 헝가리와 영구친선조약(örökbarátsági szerződés)을 맺은 유고슬라비아를 침략한 날이었다.

의 폴란드 난민들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1941년 초, 독일의 압력으로 폴란드의 외교 공관이 부다페스트에서 철수할 때까지 그들은 헝가리 기관들의 긴밀한 조력 덕분에 자국의 난민들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안익태가 첼로 연주를 했던 바로 그 시기는 헝가리에서 폴란드 난민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던 시기였으며,⁴¹⁾ 당시 폴란드 문화원⁴²⁾이 주최한 자선음악회는 순수한 문화적, 예술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폴란드가 독일의 침공에 점령당하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헝가리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극대화 되던 시점이었기도 하였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일본도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련과 일본 간의 할힌골 전투에서 일본이 패하고, 몰로토프와 토고 시게노리(東郷茂徳) 간의 합의가 있는 바로 다음 날(1939년 9월 17일), 소련은 폴란드를 침공하여 독일과 소련에 의한 폴란드 점령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헝가리에서 그의 두 번째 음악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헝가리와 폴란드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한 바로 이 자선음악회였다. 이는 “순수한 음악적 동기에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황은 일본이 외국과는 최초로 헝가리와 문화협정을 맺은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11월 15일에 일본은 해외 국가들 중 헝가리와 처음으로 문화협정(barátságí es szellemi együttmüködési egyezmény)을 체결하게 되는데, 당시 비엔나 주재 일본 공사(公使)는 그 필요성에 대한 보고에서 소련

40) Antall József and Kapronczay Károly (2019), pp. 19-21.

41) 앞서 언급한 14만 명의 폴란드 난민들 중 약 11만 명의 난민들이 독일의 폴란드 침공 후 1년 내에 헝가리에 도착하였다[Antall József and Kapronczay Károly (2019), pp. 19-21].

42) 부다페스트의 폴란드 문화원은 1934년, 양국 간의 문화 약정에 따라 1939년 5월 24일에 개원하였으며, 이는 처음으로 해외에 설립된 폴란드 문화원이었다.

에 대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의 확장을 거론하였다.⁴³⁾ 즉, 일본이 독일보다 앞서 헝가리와 문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소련에 대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동유럽을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가 작성된 비엔나 주재 일본 공사관은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에 따른 결과로 부다페스트로 옮겨지게 되고, 앞 장에서 언급한 바, 안익태는 바로 그 일본 공사관 및 형일회의 핵심적 활동 인사⁴⁴⁾의 추천으로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이후 음악과 관련된 첫 번째 그의 무대는,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지휘자나 혹은 코다이 줄탄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는 작곡가로서가 아닌 형일회가 후원한 음악회에서 첼로 연주 무대였다. 더군다나 그 연주회 이전 몇 년 동안 그의 첼로 공연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무대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즉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에 침공당하여 점령된 그 엄중한 시기에 부다페스트의 폴란드 문화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첼리스트로 등장한 무대였다. 그의 등장은 앞서 살펴보았던, “정보수집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일본 공사관의 보고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폴란드 문화원에서 주최한 이 자선음악회의 실제 공연 장소는 리스트 음악원이었으나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리스트 음악원의 동료들은 참가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안익태만 첼리스트로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⁴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날 연주 프로그램은 바흐, 리스트, 그

43) 우메무라 유키(Umemura Yuko)는 이 외에도 일본이 헝가리와 문화협정을 맺은 이유로 “(일본은) 야만적인 민족(barbár nép)이라는 세상의 인식에 대해 문명화된 국가임을 알릴 수 있고, 일본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데 외무성이 일정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外務省外交史料館)의 당시 협의 자료를 인용하였다[Umemura Yuko (2006), *A Japán-tengerről a Duna-partig*, Budapest: Gondolat kiadó, p. 17].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0a), pp. 84-82 참조.

44) 추천인은 앞 장에서 언급하였던 호프 페렌츠 동아시아 예술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펠빈치 터카츠 줄탄이다.

리고 자신의 곡들로 구성되었다는 기록⁴⁶⁾을 볼 때, 이는 1939년 5월 17일 연주회의 프로그램과 동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음악회가 연주자로서 안익태의 음악적인 발전이나 성취를 선보인 무대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안익태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그가 1940년 6월까지만 외트비쉬 기숙학교에 체류가 허가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전년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기숙학교의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되었던 사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⁴⁷⁾ 이후 안익태가 무대에서 첼로 연주를 하였다는 더 이상의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⁴⁸⁾ 연주자가 아닌 지휘자로 1940년

45) 이 음악회에 참가한 헝가리, 폴란드 음악인들에 대해서는 각주 31) 참조.

46) Krzysztof Woźniakowski (2009), p.126.

47) 김보국(2020a), p. 126. 최근 프랑크 호프만은 안익태가 “스페셜 에이전트”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여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Frank Hoffmann (2015), “The Berlin Koreans, 1909-1940s”, *Berlin Koreans and Pictured Koreans* (ed. by Andreas Schirmer and Frank Hoffmann), Wien: Praesens, p. 112]. 헝가리에 머문 이후 독일에서 안익태의 행적에 대해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그 조사와 결과에 따라 프랑크 호프만의 주장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헝가리에서 안익태의 행적에 한정한다면, 그가 “스페셜 에이전트”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물론 프랑크 호프만은 안익태의 “베를린 시기”에 대하여 그가 “스페셜 에이전트”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주장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일본의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는 목적과 안익태의 형일회 관련, 또는 정치적 목적의 음악행사 참여는 분명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스페셜 에이전트”로서의 “임무”라는 점에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안익태가 약 2년 반 정도 헝가리에 있었으나 헝가리어를 구사할 수 없었고, 헝가리 음악인들, 또는 헝가리에 있었던 해외 인사들과 접촉한 기록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그들과의 교류가 극히 적었으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40년 12월에 헝가리의 외트비쉬 기숙학교 사용 비용 문제로 거의 쫓겨나듯이 퇴소하였기 때문이다. 김보국(2020a), pp. 95-97 참조.

48) 헝가리 신문에 게재된 라디오 방송 편성표에는 안익태가 1942년 10월 14일(슈베르트, 아베마리아)과 1942년 12월 3일(백합-노래)에 “Hangszerszóló”라는 프로그램에서 첼로 연주를 한 기록이 있다. “Hangszerszóló”는 오전에 약 25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약 6명의 음악 연주를 들려주던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 「A Pesti Hírlap Rádiómelléklete」, *Pesti Hírlap*, 1942.10.09, p. 12; 「A Pesti Hírlap Rádió-

4월 말부터 그해 말까지 로마, 베오그라드, 부다페스트, 소피아, 부쿠레슈티에서 무대에 오르게 된다.⁴⁹⁾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이후 그곳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비교적 조용했던 그의 행적⁵⁰⁾이 이후 갑자기 화려한 변화를 보인 것 역시 그가 형일회 및 정치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음악회에 참여했던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을 바꾸어 소개하고자 하는 그의 1940년 9월 4일 음악회에서는 일본 공사를 비롯하여 공사 부인 및 가족들과 공사관 관원들로 귀빈석이 채워졌는데, 이 역시 이전 기록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로써 정치적인 그의 음악적 행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1940년 9월 4일, “부다페스트 갤러리에서 특별 음악회” (Rendkívüli hangverseny a Fővárosi Képtár kertjében)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헝가리에서 안익태는 1936년부터 두 차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지휘를 하였으며, 형일회의 후원으로 한 차례 첼로 연주회를 가졌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폴란드 문화원에서 주최한 음악회에서 한 차례 첼로를 연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음악회들은 모두 헝가리 음악학연구소에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는 공식적인 음

melléklete], *Pesti Hírlap*, 1942.11.27, p. 13 참조.

49) 허영한(2009), pp. 197-203 참조.

50) 리스트 음악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역사를 정리하여 출간한 *A Liszt Ferenc Zeneművészeti Főiskola 100 éve* (『리스트 음악원의 100년』)라는 책에는 코다이 졸탄의 강의 수강자 명단을 정리해 둔 자료가 있는데, 안익태의 이름은 그곳에 한 번 등장할 뿐이다[Ujfalussy József (1977), *A Liszt Ferenc Zeneművészeti Főiskola 100 éve*, Budapest: Zeneműkiado, p. 155]. 신문 기사 외에 전문적 음악 잡지에 안익태가 등장한 적도 몇 번 있으나 그의 음악과 능력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지면이 부족하고 본고의 주제와는 다소 벗어나기에 이에 관해서는 후속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악회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비전문적인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음악학연구원의 공식 공연 정보에 등장하는, 헝가리에서 음악가로서 안익태의 실질적인 데뷔 무대는 1940년 9월 4일, 부다페스트 갤러리의 야외 정원에서 개최한 음악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7종의 신문⁵¹⁾에서 12편의 기사가 이 음악회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였을 정도로 이 음악회는 언론에 큰 조명을 받은 그의 지휘 무대였다. 일례로 [자료 3]에서 볼 수 있듯이 『넴제티 우이샤그』라는 신문은 안익태의 큰 사진을 1면에 실었을 정도로 이 음악회를 중요하게 다루었다.⁵²⁾ 흥미로운 점은 [자료 4]에서 볼 수 있듯이 안익태의 큰 사진을 싣고 그 아래에 간략한 설명까지 곁들였으나(<일본 작곡가이자 지휘자 안익태가 9월 3일 수도(首都) 관현악단을 지휘하다>), 실제로 그 음악회와 관련된 기사는 9면에 작은 단신으로만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짧은 내용이기엔 그 단신 기사를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⁵³⁾

< 부다페스트에서 일본 지휘자 >

일본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안익태(Ekitai Ahn)는 도쿄제국음악원의 전(前) 교수였으며, 이전에 뉴욕, 베를린, 로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그가 9월 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부다페스트 갤러리 야외 정원에서 수도 관현악단(역주: 헝가리 국립 관현악단의 모체)을 지휘한다. 음악회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베토벤의 Egmond 서곡,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그리고 안익태의 두 작품: <녹턴과 에텐라쿠(Noturne et Etenraku)> 및 <조선(Corea)>이라는 교향적 환상곡(szimfonikus fantázia) No. 1.

51) *Nemzeti Újság*, 1940.08.29, *Új Magyarság*, 1940.08.29./09.03, *Függetlenség*, 1940.08.30./09.01./09.06, *Magyarság*, 1940.09.01./09.06, *Pesti Hírlap*, 1940.09.03, *Esti Újság*, 1940.09.05, *Népszava*, 1940.09.05.

52) *Nemzeti Újság*, 1940.08.29, p. 1.

53) 「Japan karmester Budapesten」, *Nemzeti Újság*, 1940.08.29, p. 9.

우선 음악학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와 이 연주회를 전후로 언론에 소개된 다수의 기사들을 통해 이 음악회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음악회의 공식 명칭은 “부다페스트 갤러리 야외 정원⁵⁴⁾에서의 특별 음악회”(Rendkívüli hangverseny a Fővárosi Képtár kertjében)이며, 앞서 언론에서 기사화 된 것과는 다르게 이 음악회는 1940년 9월 3일(화요일)이 아닌 9월 4일(수요일)에 개최되었다.⁵⁵⁾ 1940년 8월 29일자 『우이 머저르샤그』(Új Magyarország)에는 도쿄에서 개최된 연회와 더불어 이 음악회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일본 왕가의 아사카(Asaka)와 히가시 후시미(Higasi Fusimi)가 참석한 귀족 클럽에서 일본 정치인들과 사회 명망가들이 헝가리 공사에게 만찬을 베풀었고, 니폰-헝가리 협회 회장인 미츠이 타카하루(Micsui Takaharu)가 음악회를 주선하였음을 이 기사는 알리고 있다.⁵⁶⁾ 같은 기사에서 이 내



[자료 3] 일간지 『넴제티 우이샤그』 1면에 실린 사진

54) 부다페스트 갤러리(Fővárosi képtár)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당시 Egyetem街(현재 Károlyi街) 6번지에 있었으며[1928년에 카로이 궁(Károlyi 宮)을 매입, 현재 페토티(Petőfi) 문학 박물관으로 사용], 그곳의 야외 정원에는 보통 여름 3달 동안 음악회가 자주 개최되었다. 부다페스트 도심에 위치한 이 야외 정원은 지금도 카로이 정원(Károlyi kert)으로 불리며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장소이다. 주변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도심 속 작은 공원이다.

55)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1940년 9월 3일에 이 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으나, 9월 1일자 *Függetlenség*과 9월 3일자 *Új Magyarország*에는 9월 4일(수요일) 개최를 알리고 있다. *Függetlenség*, 1940.09.01, p. 11, *Új Magyarország*, 1940.09.03, p. 6 참조.



[자료 4] 『넬제티 우이사그』 1면
에 실린 사진과 설명 확대

용 다음에 안익태의 음악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헝가리와 일본은 양국에서 유사한 행사를 기획했음직하다. 더군다나 여러 신문들에서 이 음악회의 참석 인사에 대해 “(부다페스트 거주) 일본인들 대부분과 일본 공사 및 그 부인과 가족들”(teljes számmal a japani kolónia, a japán követ feleségével és családjával),⁵⁷⁾ “부다페스트 주재 일본 공사와 공사관의 다수의 관원들”(budapesti japan követ es a követseg szamos tisztviselője),⁵⁸⁾ 그리고

“미소 짓는 많은 수의 동포들”(számos mosolygó honfitársat)⁵⁹⁾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음악회가 열린 다음 날인 9월 5일, 『넬써버』(*Népszava*)에는 안익태와 이 음악회에 대해 비교적 장문의 기사가 실렸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⁶⁰⁾

… 안익태(Ekitai Ahn)는 2년 전 해외 견학 차(világkörüli tanulmányúton) 부다페스트에 당도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을 떠난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찾던, 지식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곳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어디에도 정착할 마음이 없었기에 씬 없이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다녔다. (덧붙여 3년간 해외 견학에 필요한 장학금을

56) 「Magyar hangverseny Tokióban」, *Új Magyarság*, 1940.08.29, p. 6. 당시 일본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일본 음악가들이 후버이(Hubay), 바르톡(Bartók), 그리고 리스트의 곡들을 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7) 「Japán dirigens: a Székesfővárosi Zenekar élen」, *Esti Újság*, 1940.09.05, p. 8.

58) 「Japán vezénylet a Károly-kertben」, *Magyarság*, 1940.06.06, p. 9.

59) 「Japán hangverseny a Fővárosi Képtár kertjében」, *Függetlenség*, 1940.09.06, p. 8.

60) 「Művészet Irodalom」, *Népszava*, 1940.09.05, p. 6.

각종 음악학교 교장들을 통해 제공한 조선의 문화 분야 담당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⁶¹⁾ 안익태는 이 2년 동안 도흐나니 에르뇌(Dohnányi Ernő)와 코다이 줄탄의 지도하에서 완벽하게 지휘와 작곡을 배우게 되었다. … 그의 작품들에는 영향을 끼친 여러 종류의 요소, 특히 러시아적인 것들(차이코프스키, 보로딘, 립스키-코르사코프), 하지만 헝가리적인 것(코다이) 또한 서로 겹쳐졌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작품들에서 프랑스의 특징적인, 빠르게 울리는 6/8박자 리듬이 풍부한 역할을 맡은 것과, 편곡한 조선의 민요들 또한 오래된 서구적 취향의 조화 속에서 독일풍으로 울린다(németesen szólnak)는 것이다.

이 “특별 음악회”가 개최되었을 당시, 헝가리의 사정은 어떠한지, 어떤 배경 하에서 이 “특별 음악회”가 개최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는 헝가리에서 가장 긴급하고, 전(全) 국민적, 민족적 관심사였던 트란실바니아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1940년 8월 30일의 제2차 비엔나 재정(裁定, Második bécsi döntés, Second Vienna Award)이 이루어진 직후였다. 이로써 헝가리는 트리아농 조약으로 상실했던 이 지역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었다. 트란실바니아 전체 지역에 대한 영토 회복이 아니었기에 일부 국민들의 불만은 있었으나 대체로 헝가리 국민들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하였고, 중재의 당사자였던 나치 독일과 이태리에 대한 헝가리의 경도는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이 음악회가 개최된 직후인, 9월 27일에는 독일, 이태리, 일본 간에 삼국동맹조약이 맺어지게 된다. 이 조약의 주체인 세 국가를 제외한 첫 번째 조약 가입국이 헝가리였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⁶²⁾ 따라서 이 시기는 유럽

61) 괄호 안의 내용은 기사의 내용과 양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아마도 안익태는 기자에게 자신이 조선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린 듯하다. 당시 안익태는 헝가리 외트뵈쉬 기숙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 문제로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고, 결국 이 음악회가 개최된 지 약 3개월 후에 기숙학교를 떠나게 된다.

62) 헝가리는 삼국동맹조약 체결 후 즉시 이 조약에 동참하고자 하였으나, 독일과

의 새로운 질서를 통해 약 20년 전에 잃었던 국토의 2/3를 되찾고자 하는 헝가리와 동유럽에서 활용 가능한 정치, 외교적 기반을 헝가리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이 무르익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안익태가 지휘한 이 “특별 음악회”는 음악과 정치의 경계가 모호한, 일종의 음악적 정치 프로파간다의 역할 수행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앞서 안익태의 사진이 신문 1면에 실린 [자료 3]의 머리기사 제목은 <비엔나 회동 전에 히틀러(Hitler)가 치아노(Ciano, 역주: 당시 이태리 외무장관)와 립벤토르프(Ribbentrop, 역주: 당시 독일 외무장관)와 대화를 나누다>(A bécsi találkozó előtt Hitler megbeszélést folytatott Cianoval es Ribbentroppal)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익태의 사진 아래에 실린 설명, 즉 “일본 작곡가이자 지휘자 안익태가 9월 3일 수도 관현악단을 지휘하다”라는 내용과 맥락적으로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제2차 비엔나 재정으로 헝가리는 국토 회복의 열망이 현실화되던 시기였고, 아울러 삼국동맹조약을 앞두고 신문의 1면에 헝가리와 “독일-이태리-일본”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기사와 사진을 배치하였는데, 의도적이면서 독특한 이런 편집 방식은 『넵제티 우이샤그』만이 오랫동안 전대특허처럼 누렸던 1면의 레이아웃이기도 하였다.⁶³⁾

반면 안익태는 이 음악회를 전후하여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연주 여행하게 된다. 삼국동맹조약이 체결된 후 이

이태리 외무장관은 헝가리의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Réti György (1999), “Magyarország csatlakozása a berlini háromhatalmi egyezményhez”, *Világtörténet* 2., MTA Kutatásszervezési Intézet, pp. 88-89]. 헝가리는 결국 1940년 11월 20일에 삼국동맹조약 참가에 서명하였다[Réti György (1999), p. 95].

63) 『넵제티 우이샤그』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다른 일간지와는 다르게 항상 1면에 기사 관련 인물의 사진을 [자료 3]과 같이 두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매일 4인의 사진이 1면을 장식하였고, 이러한 독특한 레이아웃은 1933년 6월 중반에 시작되어 1941년 10월 중반까지 이어졌다.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모두 동유럽 국가들이며, 헝가리가 이에 동참한 이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도 차례로 조약국이 된다. 이 시기에 그가 연주 여행을 한 모든 국가는 삼국동맹조약 참여국들이 된 셈인데, 이를 “우연”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정황으로 그가 음악가로서 일본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수행한 것으로 여길 여지도 충분하다.

6. 맺는 말

이상으로 안익태가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이후부터 그가 헝가리를 떠날 때까지의 행적을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를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 신문 기사 외에는 그의 음악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틀 네 항목에서 다루었던 그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1940년 9월 4일의 지휘를 제외하고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이다. 9월 4일의 음악회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에서 소개했던 내용⁶⁴⁾들이 아닌 새로운 자료를 통해 재해석해보았다.

본문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토대로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하고 있었을 당시 안익태의 행적은 다음으로 정리되고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로, 리스트 음악원 등록 전에는 두 차례나 헝가리 라디오 방송국에서 지휘를 하였고, 아일랜드 방송국에서도 한 차례 지휘를 하였으나, 음악원 등록 이후 약 2년 동안은 지휘자로서 음악 활동이 없었다. 음악원 등록 전,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그는 코다이 졸탄의 지도를 받아 민요와 민족의 정신을 모티브로 한 창작곡에 뜻을 두고 있음을 밝

64) 허영한(2009), pp. 199-201 참조.

했고,⁶⁵⁾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던 <한국 환상곡>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음악원 등록 이후 약 1년 동안 그의 음악적 활동은 없었으며, 이후 대외적인 음악 활동의 재개는 형일회가 후원한 첼로 연주회가 그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의 첼로 연주는 다음해까지 이어진다.

둘째로, 형일회 관련 인물과 부다페스트 주재 일본 공사관으로부터 추천을 통해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이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안익태의 음악 활동에 그들의 관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음악원 등록 이후 그의 첫 대외적인 활동이었던 1939년 5월 17일의 첼로 연주회는 초청장과 프로그램에 기재된 바를 통해 형일회가 후원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1940년 3월 9일에 부다페스트의 폴란드 문화원이 주최한 음악회에서 첼로 연주를, 그리고 9월 4일에는 “특별 음악회”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형일회와 일본 대사관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살펴보았다.

셋째로, 헝가리에서 안익태의 공식적인 음악 활동은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그의 음악 활동은 일본의 정치적, 외교적 활동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1930년대 국내 언론을 통해 해외에서 안익태의 활동상은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헝가리에서 공식적인 공연 기록으로 확인되는 그의 음악 활동은 1940년 9월 4일 “특별 음악회”가 최초이며, 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회를 지휘한 것과 첼로 연주회 등은 단지 개인적인, 또는 연회 성격의 음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특별 음악회”를 전후

65) 본문의 신문 기사 외에도 「Egy ázsiai muzsikusi», *Pesti Hírlap*, 1938.07.12, p. 15. 참조[김보국(2020b), pp. 265-267]. 리스트 음악원 등록 후 지휘자로 처음 무대에 선 것도 헝가리가 아닌 이태리의 라디오 방송국과 베오그라드에서였다. 당시 베오그라드에서 일본 궁정 음악의 선율을 차용한, 리스트 음악원 등록 이후 첫 번째 그의 작품인 <에텐라쿠>(Etenraku)를 <한국 환상곡>과 함께 지휘하였다(이태리 방송국에서 지휘한 곡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음). 허영한(2009), pp. 197-198 참조.

하여 그가 지휘 무대에 섰던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헝가리를 포함하여 이후 모두 삼국동맹조약에 참여한 국가들이다. 일본은 해외 국가들 중 처음으로 헝가리와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안익태의 당시 음악 활동은 문화협정 체결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 중 하나였던, 즉, 헝가리를 통해 소련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일본의 정치·외교적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헝가리 출처 자료들을 중심으로 안익태의 행적과 그의 음악 세계에 대해 일련의 글들을 준비하며, 그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의외로 양적으로 적으며,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자 료】

한국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미국 신문: *Chester Times*.

헝가리 신문: *Esti Újság, Pesti Hírlap, Nemzeti Újság, Függetlenség, Új Magyarország, Magyarság, Népszava*.

외트비쉬 요제프 기숙학교 문서보관소 자료(부다페스트, 헝가리):

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11. oldal.

_____ ; 34. doboz, 50. dosszié. 12. oldal.

_____ ; 34. doboz, 50. dosszié. 270/1940.

【논 저】

김보국(2020a), 「안익태I」, 『한국학연구』 72, 한국학연구소.

김보국(2020b), 「안익태II」, 『인문학연구』 33, 인문학연구소.

이경분(2007),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서울: 휴머니스트.

이유선(1976), 『한국양약백년사』, 서울: 중앙대학교출판국.

허영한(2009), 「<한국 환상곡>의 여행: 1937년 미국에서 1946년 스페인으로」, 『낭만음악』 21(3), 낭만음악사.

Antall József and Kapronczay Károly (2019), *LENGYEL MENEKÜLTEK MAGYARORSZÁGON A HÁBORÚ ALATT: LENGYELEK ÉS MAGYAROK*, Magyar Tudománytörténeti és Egészségtudományi Intézet.

Hoffmann, Frank (2015), “The Berlin Koreans, 1909-1940s”, *Berlin Koreans and Pictured Koreans* (ed. by Andreas Schirmer and Frank Hoffmann), Wien: Praesens.

Krzysztof Woźniakowski (2009), “Instytut Polski w Budapeszcie: działalność kulturalno-oświatowa, naukowa i wydawnicza w latach 1939-1944”, *Studia*

- ad Bibliothecarum Scientiam Pertinentia*, Vol. VII, Uniwersytet Pedagogiczny im. Komisji Edukacji Narodowej w Krakowie.
- Nyáry Pál (1938), *Magyar-lengyel barátság*, Budapest: Pallas ny.
- Réti György (1999), “Magyarország csatlakozása a berlini háromhatalmi egyezményhez”, *Világtörténet* 2., MTA Kutatásszervezési Intézet.
- Stachó László (2006), “Szép vagy, gyönyörű vagy... Magyarország?”, *Muzsika*, 49évf. 5 sz, Pro Musica Alapítvány.
- Sutarski Konrád (2012), “Az 1000 éves lengyel-magyar kapcsolatok”, *Barátság*, 19. évf., Országos Nemzetiségi Onkormányzatok Szövetsége.
- Ujfalussy József (1977), *A Liszt Ferenc Zeneművészeti Főiskola 100 éve*, Budapest: Zeneműkiadó.
- Umemura Yuko (2006), *A Japán-tengerről a Duna-partig*, Budapest: Gondolat kiadó, 2006.

원고 접수일: 2020년 12월 30일

심사 완료일: 2021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22일

ABSTRACT

Study on Eak-tai Ahn (III):

1938-1940, Two Cello Concerts and One Conducting Stage

Kim, Bogook*

There are surprisingly few studies on Ahn Eak-tai, the composer of <Symphonic Fantasy Korea> and <The National Anthem>. This may be because of his biography, which was first published in 1966 and revised five times until 2006. In the book written by Kim Kyung-rae, Ahn Eak-tai was described as a prominent patriot, and an outstanding musician. It may be that the depiction which was formed through decades as if it was real, has not excited researchers curiosity as a special research topic. However, since the new data related to Ahn Eak-tai have been discovered, the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him have been changed by a certain circle of researchers. This article is the third paper that examines his Hungarian life and the world of his music, focusing on recently discovered Hungarian materials. In the 1930s, his activities in Europe were known through Korean domestic newspapers. Compared with it, in this paper, based on the Hungarian materials, we reviewed the real facts of his musical activities in the period of his Liszt Academy days.

* Chief Researcher, AEAS, Sungkyunkwan University.